

보도자료

2021. 7. 8.



상해한국학교

SHANGHAI KOREAN SCHOOL

학생생활지원부 ☎ 6493-9512

자료문의: 학생생활지원부 ☎ 6493-9512 교사: 학생생활지원부 서정혁 담당: 서정혁

제목 : 상하이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! SKS 우승만큼 값진 경험!

□ 상해한국학교(교장 전병석)는 성장기 재외한국학교 학생의 활발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체·덕·지를 겸비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,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목표 실천을 위해 상하이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에 재외한국학교 대표로 참가하였다.

□ 상해한국학교(SKs)는 상하이에서 개최된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우승 보다 값진 배움과 뿌듯함을 만끽하였다. 그간 코로나-19로 주춤했던 스포츠 대외 경기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된 이번 시험은 상하이 내 유소년 클럽 및 국제학교 10개 팀이 참가한 규모 있는 대회였으며, 5개팀 2개조 편성으로 조별 리그전을 통한 예선 경기와 결승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 상해한국학교는 조별 리그전 첫 번째 상대인 상하이 라이온스 클럽과의 경기에서 대회 첫 골을 주신우(11학년) 학생이 터트렸다. 하지만 체력의 한계와 수비진이 무너지면서 국제 경기 첫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. 이 후 두 번째 경기인 상하이 해강(전 상하이 상강) 클럽과의 경기에서는 첫 경기의 경험을 지혜삼아 체력과 수비 보강을 하였지만 기술의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. 이후 연속된 경기에서 국제무대에서의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비록 결승 토너먼트 진출은 무너졌지만 상해한국학교 축구팀(SKs FC)은 페어플레이상(Fair Play Award)과 우수기관(Excellent Organization)으로 선정되며 재외한국학생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.



[그림1] SKS 축구단 출정식.



[그림2] SKS 축구단 첫 경기

□ 대회에 참가했던 주장 주신우(11학년) 학생은 “이렇게 큰 대회에 한국 학생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영광이었고,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” 라고 표현하였으며, 감독교사(서정혁)는 “비록 경기력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번 경기처럼 포기하지 않는 높은 정신력과 스포츠맨십으로 훌륭하게 성장해 주길 바란다” 고 전했다. 상해한국학교 교장(전병석)은 “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성실하게 대회 참가 전 과정을 함께 해준 선수와 감독 교사에게 감사함을 표현하였으며, 앞으로 다양한 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길들 수 있기를 바란다” 며 학생들을 격려했다.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후원을 해주신 화동축구연합회 명예회장님, K-zone Golf, 동방FC 한인축구회, CREAS F&C, 汎韓物流有限公司上海分公司, 79FOUNYARD(macaron&croffle), SHANGHAI EDU GROUD 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.



[그림3] SKS 축구단 '페어플레이상'; '우수팀상' 수상



[그림4] SKS 축구단 선수 및 코치단

2021. 07. 08.

상 해 한 국 학 교 장